



보도 일시	2022. 12. 29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12. 29.(목) 10:00
담당 부서	법인납세국 법인세과	책임자	과 장 고근수 (044-204-3301)
		담당자	사무관 유민희 (044-204-331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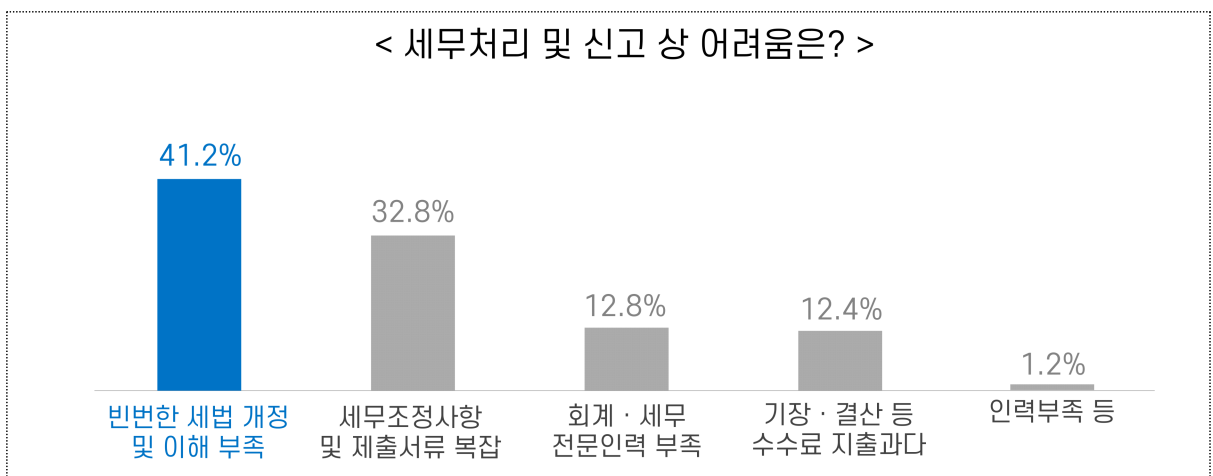
## 알기 쉬운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 발간

- 어려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, 이론부터 판례까지 모두 정리 -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
-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, 이번에 첫 번째로 발간한 책자(1권)는 그동안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던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.
-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특수관계인, 시가, 경제적 합리성 등 주요 개념을 쉽게 기술하였으며,
  -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12가지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, 이익 계산방법, 세무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
  - 특히,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\* 중심으로 실제 발생한 사례를 함께 제공하였습니다.
  - \*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
-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(e-book)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\*할 예정입니다.
  - \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책/제도 > 통합자료실 > 국세청 발간책자 > 세금안내 책자
  -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.

- 2020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「세제·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
  -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 부족, 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, 회계·세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.

< 중소기업 세제·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>



(20.12월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 참조)

- 아울러, 기업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무비용이 발생하고,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,
  -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세법의 주요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해설 책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.
  - 이번에 발간한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I 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
  - 그동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과 기업 간에 다툼이 많이 발생한 점을 감안,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하여 우선 발간하였습니다.

## 2 주요 내용

-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총론, 특수관계인, 시가,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유형별 예시, 세무 조정 및 소득처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.
- ‘총론’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, 법률효과, 다른 세법과의 관계 등을 설명하고, ‘특수관계인’에서는 기업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도식화하여 제공하였습니다.
- ‘시가’에서는 시가 적용의 원칙, 시가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, 시가의 입증책임 등 핵심내용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.
- ‘경제적 합리성’에서는 상거래 관행, 경영판단 및 정부정책으로 구분하여 부당행위로 본 사례와 보지 않은 사례를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.
- ‘부당행위계산의 유형’에서는 12가지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, 기업들이 실무상 어렵게 느끼는 합병·증자감자 등 자본거래 유형에 대한 적용요건, 이익 계산방법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.
- 특히, 기존의 이론 위주의 구성에서 탈피하여 대법원 판례\*를 중심으로 법령 및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.

\* 대법원 주요 판례 52개를 상세히 기술하는 등 82개의 대법원 판례 반영

## 3 이용 방법 및 향후 계획

- 부당행위계산부인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(e-book)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\*할 예정입니다.
- \* (접근경로) 국세청 누리집 > 국세정책/제도 > 통합자료실 > 국세청 발간책자 > 세금안내 책자
-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「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」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.

□ **개념 및 취지**

- (개념)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 -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
- (취지)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 또는 계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

□ **적용 요건**

① 적용대상 법인 + ② 특수관계 + ③ 조세부담 감소 + ④ 경제적 합리성  
요건을 모두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

- (적용대상)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일 것
- (특수관계) 거래 상대방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 것
- (조세부담)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
- (경제적 합리성) 해당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일 것

□ **부당행위계산 유형**

구 분	유 형
자산 거래	①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 ②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가 양도
금전 등의 거래	③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 ④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
자본 거래	⑤ 불공정 합병, 불균등 증자,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⑥ 그 외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
기타 거래	⑦ 무수익 자산을 매입 ⑧ 불공정 합병·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감소 ⑨ 불량자산의 차환 또는 불량채권의 양수 ⑩ 출연금의 대납 ⑪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의 포기 ⑫ 그 밖에 법인의 이익의 분여



**I. 총론**

1.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 및 취지
2.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
3. 다른 세법 규정과의 관계
4.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
5.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기준금액 요건

**II. 특수관계인**

1. 특수관계인의 판정기준
2. 특수관계인의 범위

**III. 시 가**

1. 시가 적용의 원칙
2. 감정가액
3.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
4. 시가의 판정시기 및 입증책임
5. 시가 산정 관련 주요 판례

**IV. 경제적 합리성**

1. 개요
2. 판례 분석

**V. 부당행위계산의 유형**

1. 자산 거래
2. 금전 등의 거래
3. 자본 거래
4. 기타 거래

- ◇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(대법원 2016두40375, 2018.7.26.)

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권리가 불리하므로 후순위 차입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할 수 없음

### 사실관계

원고는 '06년에 준공된 00고속도로에 대해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후순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금의 일부는 연 12%, 나머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연 20%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함 (선순위 차입금의 이자율은 연 6.7%임)

### 과세처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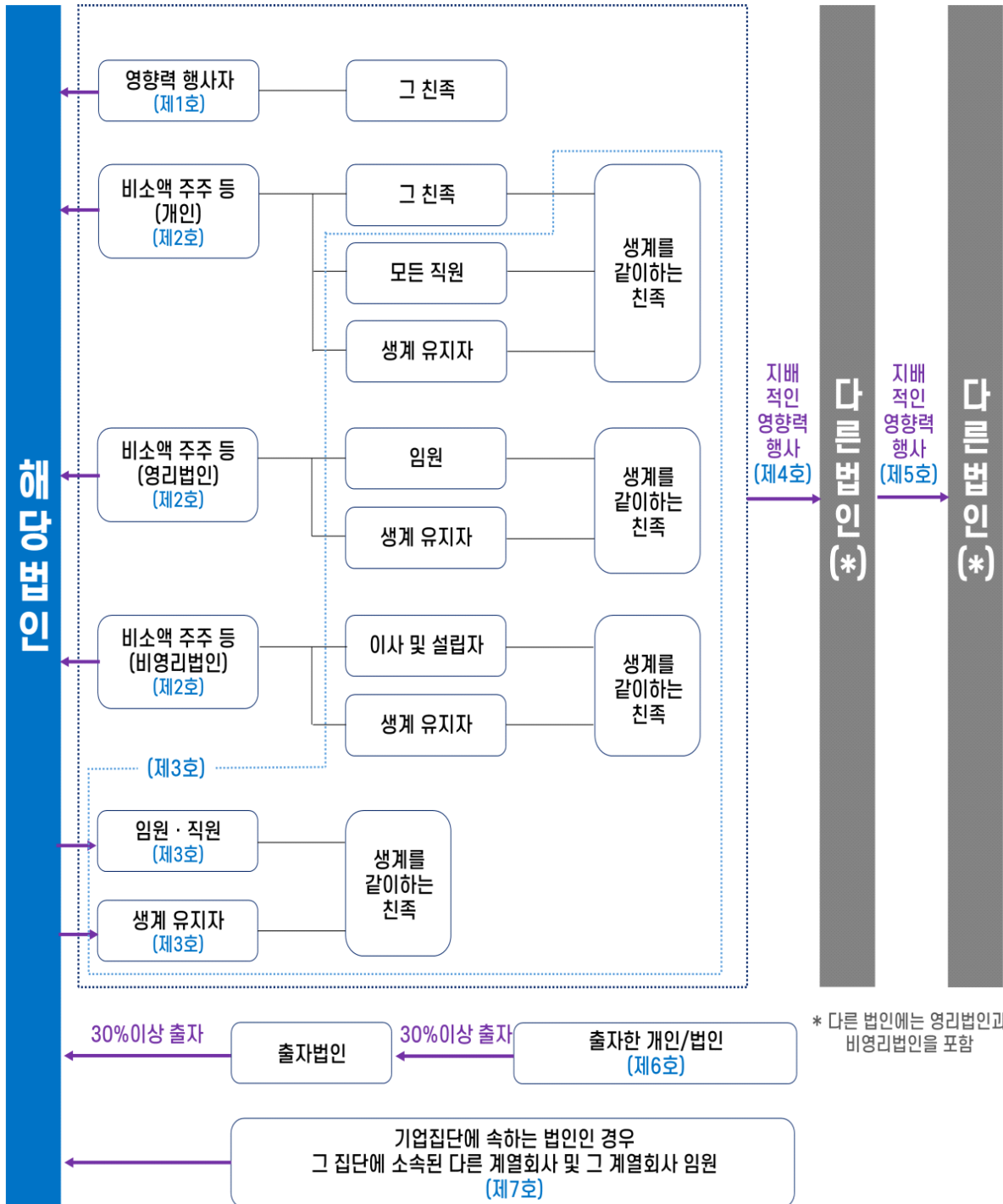
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주주에게 지급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 지급 이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함

### 판결내용

민간투자사업에서 후순위 차입금은 선순위 차입금에 비해 그 지급조건, 상환기간, 담보 등에 있어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점, 민간투자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이 투자되는 반면 투자이익의 회수기간은 매우 장기간이므로 사업시행자(대주주)가 투자비용에 대한 미회수 위험을 부담하게 됨

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의 원금상환은 분할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후순위 차입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높은 이자율이라 할 수 없음

<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>



## 붙임 5

## 계산 사례 (예시)

- ▶ 해당 법인이 대표자(개인)로부터 시가 1억 원인 건물을 2억 원에 취득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

☞ 거래가액(2억 원) - 시가(1억 원) > 시가(1억 원) × 5% → 기준금액 요건 충족

### ① 건물 매입 시

기업회계	세무회계	세무조정
(차) 건물 2억 원 (대) 현금 2억 원	(차) 건물 1억 원 사외유출 1억 원 (대) 현금 2억 원	익금산입 : 고가매입 1억 원(상여) <sup>1)</sup> 손금산입 : 건물 1억 원(△유보) <sup>2)</sup>

1) 현금 1억 원 사외유출 →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

2) 기업회계상 건물 1억 원 과대계상 → 손금산입 유보처분

### ② 감가상각 시 :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상각

기업회계	세무회계	세무조정
(차) 감가상각비 1천만 원 <sup>1)</sup> (대)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 원	(차) 감가상각비 5백만 원 <sup>2)</sup> (대) 감가상각누계액 5백만 원	손금불산입 : 건물 5백만 원(유보)

1) 2억 원 ÷ 20년, 2) 1억 원 ÷ 20년

### ③ 건물양도 시 : 2억 원에 양도

기업회계	세무회계	세무조정
(차) 현금 2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 원 (대) 건물 2억 원 처분이익 1천만 원	(차) 현금 2억 원 감가상각누계액 5백만 원 (대) 건물 1억 원 처분이익 1억 5백만 원	익금산입 : 건물 9천5백만 원(유보)